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2014년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공동체 희망사업에 선정되어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4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한양도성 특집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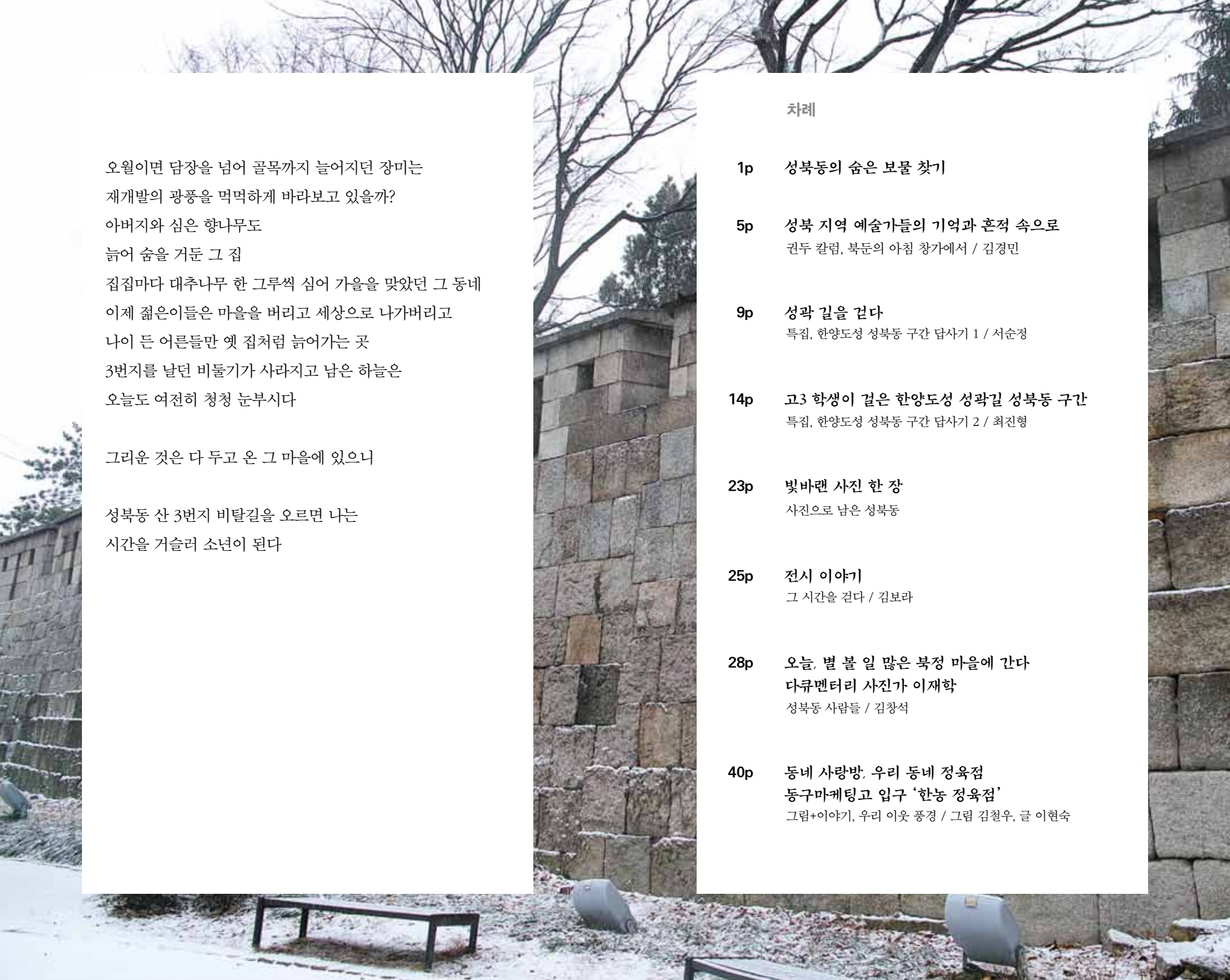
성북동 산 3번지 그 집

그리운 것은 모두 두고 온 그 마을에 있으니
성북동 산 3번지 비탈길을 오르면 나는
세월을 거슬러 소년이 된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집을 갖게 된 아버지는
마당 귀퉁이에 작은 화단을 꾸몄다
농부인 아버지의 기억이 담겨있던 그 집
삼백만원에 샀던 무허가 ब्ल록 집 방안에서는
한겨울이면 대접의 물이 뽕뽕 열었다
세월처럼 바래고 낡아 마침내는 제 몸조차 가누지 못했던
그 집

세 살짜리 계단을 걸어올라
한참 숨이 차야 만날 수 있던 녹슨 철대문과
비가 오는 날이면 청량리역에서
기차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다락방
한양도성을 마주보며 양지바른 언덕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마을에서
나는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마침내는 어른이 되었다
성북동 산 3번지
철거반과 맞서 똥물을 퍼부으며 싸웠던 사람들이 눌러 살던 곳
제 몸을 부숴버린 ब्ल록 대신
새로 벽돌집을 지은 아버지는 담장 아래 장미를 심었다

* 표지 글씨는 성북구 평생 학습관 수련생인 박중순·전현숙님께서 쓰신 글을
집자하였습니다.



오월이면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늘어지던 장미는
재개발의 광풍을 멍멍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버지와 심은 향나무도
늘어 숨을 거둔 그 집
집집마다 대추나무 한 그루씩 심어 가을을 맞았던 그 동네
이제 젊은이들은 마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나이 든 어른들만 옛 집처럼 늙어가는 곳
3번지를 날던 비둘기가 사라지고 남은 하늘은
오늘도 여전히 청청 눈부시다

그리운 것은 다 두고 온 그 마을에 있으니

성북동 산 3번지 비탈길을 오르면 나는
시간을 거슬러 소년이 된다

차례

- 1p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5p **성북 지역 예술가들의 기억과 흔적 속으로**
권두 칼럼, 북동의 아침 창가에서 / 김경민

- 9p **성곽 길을 걷다**
특집, 한양도성 성북동 구간 답사기 1 / 서순정

- 14p **고3 학생이 걸은 한양도성 성곽길 성북동 구간**
특집, 한양도성 성북동 구간 답사기 2 / 최진형

- 23p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으로 남은 성북동

- 25p **전시 이야기**
그 시간을 걷다 / 김보라

- 28p **오늘, 별 볼 일 많은 북정 마을에 간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학
성북동 사람들 / 김창석

- 40p **동네 사랑방. 우리 동네 정육점**
동구마케팅고 입구 '한농 정육점'
그림+이야기, 우리 이웃 풍경 / 그림 김철우, 글 이현숙

성북 지역 예술가들의 기억과 흔적 속으로

김경민

프랑스 근대비평의 아버지라 불리는 19세기 시인이자 비평가인 샤를 생트 뵈브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작가 개인의 역사, 즉 전기적 사실을 통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비평하였다. 이러한 역사주의 비평방식은 작가의 사상, 생활 환경, 시대와 역사적 상황 등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관점으로 특정 시대의 특정한 상황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작품이 탄생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8.15광복과 분단의 시기, 6.25전쟁, 자유당과 군사 독재 시대 등 급변했던 한국의 시대 상황과 같은 경우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문화예술가 개개인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격동과 파란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가들은 민족의 예술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대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 한국의 전통과 예술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 가운데서도 성북 지역은 검재 정선을 비롯 오원 장승업, 근원 김용준, 만해 한용운, 청록과 시인 조지훈, 작곡가 윤이상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예술계의 거장들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했던 곳으로, 성북 지역 곳곳에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의 흔적과 자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거치

- 47p 독립 운동가 만해의 별장, 심우장을 찾아서
성북동의 문화재 답사기 / 박진하
- 54p 보통 아닌 보통 책방
ORDINARY BOOKSHOP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글 김정은, 그림 정민영
- 59p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을, 마음 편한 동네-성북동
나는 성북동에 산다/이민우
- 68p 일상의 삶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마을 공동체 ‘성북동천’
성북동을 가꾸는 모임 1
- 70p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 (성.아.들)
성북동을 가꾸는 모임 2
- 77p 히말라야에 희망을 심는 NGO
‘나마스페코리아’의 꿈! 나마스페 코리아
성북동을 가꾸는 모임 3
- 85p 우리 잡지를 받아볼 수 있는 성북동 가게들

면서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생성된 사상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적 소산들을 역사 속에 간직해 두었다.

‘흔적’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는 뜻을 가진다. 역으로 말하면 과거 예술인들이 경험했던 특정 시대와 인물들에 대한 시대적·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한 시대를 품어왔던 예술가들의 실체, 즉 인간적 본질 그 자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재생하려는 노력은 당대 문화예술가들이 창작해낸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대표하는 예술가 혹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이자 수필가, 역사가인 김용준은 성북동에 위치한 ‘노시산방’을 중심으로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또한 그는 일본 유학 당시 교우하게 된 현대 소설가 이태준을 비롯하여 시인 정지용, 조지훈 등과 친하게 지내며 광복 전후 한국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다 6.25 전쟁 도중 이태준 등과 함께 월북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월북하기 전 이상, 정지용, 김기림 등과 함께 문학친목단체인 ‘구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월북하기 전까지 성북동에 살았던 소설가 박태원 역시 ‘구인회’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조지훈은 당시 성북동 주변에 살고 있던 화가 김기창과 김환기를 비롯하여 작곡가 윤이상과 교류하며 지냈는데, 특히 조지훈이 청소년 시절 직접 찾아가 한용운의 심우장은 당시 민족운동가, 스님, 문학인,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으로 여전히 성북동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시인 김광섭은 성북동에 머물던 시절 병고와 싸우면서도 <성북동 비둘기> 등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해냈으며 화가 김환기와도 친분을 유

지하였는데 당시 김환기는 김광섭의 시 구절을 인용하여 작품의 제목을 짓기도 하였다. 화가 변종하는 성북동 시절 화가 김기창, 권옥연을 비롯하여 박두진, 조지훈 등과 같은 문학인들과도 교류하였으며, 특히 김기창, 김환기, 손재형, 천경자 등 지금의 예술계 거장들과도 두루 친분을 유지했던 박물관인 최순우와는 각별한 사이였다. 최순우와 함께 민족문화 수호에 일생을 바친 간송 전형필 역시 청전 이상범, 춘곡 고희동, 심산 노수현 등 당대 문화예술가 및 인사들과 두루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은 오늘날 한국 문화재의 보고(寶庫)로서 성북동에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설가 전광용을 비롯하여 조각가 권진규, 송영수 등 많은 예술가들이 성북 지역을 창작의 근간으로 삼아 활동해 오며 그들의 발자취를 남겨놓았다. 이처럼 문화예술가들의 친분 관계와 생활, 그들이 겪었던 시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살았던 시대의 특정한 삶과 개개인의 역사를 따라 한 걸음씩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물이 맑고 산이 좋은 성북동을 비롯한 성북 지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물들과의 인연(因緣)이 많은 지역이다. 그들은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난 격동과 변화의 시기를 직접 겪으며, 당대를 통해 느꼈던 개인적·사회적 경험을 그들의 작품 또는 삶 속에 예술세계로 승화시켜 담고자 했다. 험난하고 불안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작품을 향한 예술혼과 한국인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민족 정신은 오늘날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사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 문화예술가들이 공유하고 경험했던 시간의 흔적을 되짚어 봄으로써 한국 근현대사 속에 그들이 남긴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 봐야 할 것이다.

몇 백 년 전 겹재 정선이 삼선교에서 바라보며 그렸던 성북동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 곳곳에 거주하며 과거 예술가들의 정신과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과거 선인(先人)들과 여전히 특정 시대를 공유하며, 자신의 예술세계와 작품을 현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한 시대를 공유한다는 것은 과거·현재·미래가 주는 시간의 격차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간과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히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북 지역에 살던 예술가들의 교류와 흔적들 속에 남겨진 한 ‘시대’를 공유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 짓는 시간 초월적 경험을 해봄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경민은 성북구립미술관 큐레이터이고 학예사이다. 성북구립미술관의 기획전시 업무를 맡아 ‘그 시간을 걷다’등 성북근대미술관련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성북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다양한 예술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탐미할 수 있는 기획전시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 글은 2011년 10월부터 12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그 시간을 걷다’의 해설로 성북동의 문화를 다시 보기에 좋은 글이라 이번호 잡지에 재수록한다.

특집, 한양도성 성북동 구간 답사기 1

성곽 길을 걷다

서순정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4대문은 흥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정문(북대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동소문), 소의문(서소문), 광희문(남소문), 창의문(북소문)이다. 이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다. 한양도성에는 한국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이 발전시켜 온 축성기법과 성곽구조를 계승하였으며, 조선시대 성벽 축조 기술의 변천, 발전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처음 축조 당시의 모습은 물론이고 후에 보수하고 개축한 모습까지 간직 하고 있어, 성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역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유산이다.

스무 살 이후 이사를 6번 정도 다녔다. 그 중 서울에서만 4군데를 머무르게 되었다. 작년 추석 즈음 우연히 4대문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상경 하기 전 친구가 사대문 안에 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스쳐 들었는데... 사대문 안은 아니지만 사대문 바로 아래 동지를 틀게 되었다. 처음 이사를 오고 동네만 돌아다녀보다가 우연히 성곽길이 눈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지리에 약한 사

람이었다. 밝은 낮에 보아도 그 웅장함과 견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한양도성을 다 걸어보고 싶어졌다. 성북구에 걸쳐진 성곽길은 낙산공원에서 혜화문까지 그리고 성북초교 근처에서 부터 숙정문까지 이어 진다.

날 좋은 날에는 자주 성곽길을 걷곤 한다. 혜화문에서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곳은 내사산의 한 구간이다. 북쪽의 백악산(북악산, 342m) 동쪽의 낙타산(125m), 남쪽의 목멱산(남산, 265m), 서쪽의 인왕산(338m)을 가리켜 내사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주 걷는 이 구간은 냇산에서 가장 낮은 산인 낙산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도로 인접하여 찾기도 걷기도 쉽다. 낙산공원에서 성북동 방향을 바라보면 오밀조밀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는 뒤쪽으로 우뚝 우뚝 솟아 있는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풍경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금 이른 저녁부터 성곽부터 불빛이 켜지면 더욱 그림 같은 오묘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등산을 싫어 하는 사람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혜화문(동소문)에서 숙정문(북대문)까지의 구간에는 중간 중간 성곽이 끊어져 있다. 한양도성은 처음 축조된 뒤에도 여러 차례 보수, 개축되었는데 한양도성 홈페이지나 여러 자료를 통해 성곽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고 멸실, 훼손된 구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것 같다. 혜화문 바로 근처에 1941년 일본인에 의해 2층 목조건물로 건립되고 개인 주택으로 쓰이다가 1981년도부터 서울시장의 공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만날 수도 있고, 성곽 바로 아래 오밀조밀 자리 잡은 다세대주택들을 만나거나, 어느 시골 마을처럼 텃밭을 만날 수 있어 서울 안에서는 드물게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백악(북한산)은 옛 서울의 주산이다. 내사산 중 가장 높은 산으로 공극산, 면악이라고도 하였으며 산세가 ‘반쯤 핀 모란꽃’에 비유될 만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한다. 1968년 1.21 김신조 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07년 이후 개방되었다. 군사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창의문과 숙정문, 말바위로 입장을 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입장 이후에도 사진 촬영이 금지 된 곳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곳에 방문하면 평소에 잊고 있던,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실감 하게 된다.

한양도성은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로 결정 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성곽 길을 걷다 보면 성곽에 올라서서 사진을 찍거나 땀을 식히고 있는 시민 들을 곳곳에서 쉽게 만나게 된다. 문화유산이기 때문에도 성곽에 올라타면 안 되지만 위험 할 수도 있으니 세계문화유산이 될 지도 모르는 성곽을 사랑하고 지켜 가면 좋겠다. 

-
서순정은 경북 영주에서 서울로 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성북동천’ 회원이다.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성북동천’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성북동을 비롯한 서울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 중 하나다. 그동안 ‘건축교실’과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과 사람살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함께 일할 계획이다.



고3 학생이 걸은 한양도성 성곽길 성북동 구간

최진형

성북동 거리-혜화문

거리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앙상한 나무들과 쌀쌀한 바람이 이제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가을 막바지의 비 내리는 성북동은 쓸쓸함과 그리움 등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언제나 계절은 순환하고 이 거리의 풍경은 비슷하지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게 참으로 독특한 곳이다.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걷다 보니, 어느새 혜화문에 도착했다. 한양도성(지금의 서울 성곽)의 8개의 문 중 작은 축에 속하는 사소문 중에서도 동쪽에 자리 잡은 혜화문은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계이기도 하다. 문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민가, 다른 쪽에는 널찍한 차도가 자리 잡은 탓인지 도시와 마을을 구분하는 지표인 것처럼 느껴진다. 과거에는 이 문 밖은 시골이었으니 옛날에도 혜화문은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혜화문의 처음 이름은 홍화문이었으나 창경궁의 동문인 홍화문과 이름이 같아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혜화문으로 이름을 고쳤다. 일제 강점기 때 전차길을 내면서 혜화문을 허물었던 것을 1992년에 복원하였다. 이 때 옆에 도로가 있어서 원래 위치보다 약간 북쪽으로 옮겨지었다.”

- 혜화문 앞 안내 비석의 글에서 일부 발췌 -

혜화문은 조선 시대에 만주의 여진족과 통하는 길목 중 하나였다고 한다. 당시 여진족은 중국이나 조선에게 오랑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혜화문은 한양 도성의 다른 문들에 비해 저평가 받았다고 전해진다.

혜화문-경신고등학교

혜화문을 지나 주택가 길을 걸으면 오래된 돌들과 새 돌이 섞여 성벽을 이루고 있다. 본래 한양 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벽인데, 완성 이후에도 몇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성벽에 흙과 돌이 섞여 있었고 작고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해 쌓았으나 세종 시대에 모두 석성으로 바뀌었으며, 보수할 때마다 점점 반듯하고 큼직한 돌을 사용하였다. 혜화문에서 성곽을 따라 잠깐 걸으면서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성벽의 위쪽 절반이 사라진다. 자세히 보니 빌라의 벽돌담이 반으로 잘린 성곽 위에 얹혀 있다. 게다가 성벽이 사라지기 전 앞쪽 위로 펜스가 쳐져 있고 그 뒤에 위험해 보이는 흰 건물이 하나 있다. 중간 중간 끊어진 성벽과 성곽 위에 있는 흰 건물을 보니 예전에 남산 근처에 답사 갔을 때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문화재가 태반이었던 게 생각난다. 물론 거의 8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성곽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손상 없이 보존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흰 건물과 펜스, 빌라의 벽돌 벽은 ‘과연 이 돌벽이 서울성곽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성곽의 본 모습을 훼손하고 있다.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문화재라고 알아볼 수 있고 그 주변의 풍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그나마 남아 있던 성곽의 잔재마저 사라진다. 골목에 사방으로 길이 나 있는데 예전에 성곽이 있던 자리라는 표식 하나 없어 도대체 어디부터 성곽이 다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 20분 내내 골목 이곳저곳을 들쭉셨지만 성곽의 돌 조각조각 찾을 수 없다. 대략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경신고등학교 옆을 지나는 도중에 성곽이 다시 이어진다. 이번에도 성곽의 반 정도는 아예 없어지고 학교의 담으로 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다시 한 번, 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이 시급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경신고등학교-서울 성곽

도로 때문에 성곽은 다시 끊어진다. 과학고 앞을 지나서 더 가다보면 다시 성곽이 이어진다. 보통 서울성곽이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구간이다. 그래서인지 앞에 서울성곽에 대해 설명하는 비석이 놓여 있다. 새로 만들었는지 깨끗하다. 다만 단순히 성곽에 대한 정보만을 나열해 놓은 모습과 성곽과 매치가 잘 안 되는 디자인이 조금 눈에 거슬린다. 어떤 곳은 그냥 돌에 이름만 써놓고 설명이 아예 없거나 더럽혀지고 갈라진 표지판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 정도니 ‘그래도 이렇게 해 놓은 게 어디야’ 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 문화재 보존은 갈 길이 멀다.

서울 성곽 산책로를 걷다가 한동안 정신이 멍해진다. 늦가을의 커다란 단풍나무와 붉게 물들은 단풍잎이 터널을 만들었다. 성곽 산책로에서 본 단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도시 안에서 이런 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니! 항상 시간에 쫓기는 듯 바쁜 사람들 속에서, 어쩌다 고개 들어 주변을 둘러 봐

도 갑갑하기 만한 회색 도시, 서울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절로 행복해진다. 한참을 홀린듯 바라보다 다시 걷는다.

성곽 중턱에서 오른쪽에 난 셋길로 방향을 바꾼다. 800년 가까이 된 한양 도성을 뒤로 하고 성북동의 달동네, 북정마을로 향한다.

북정마을

성북동은 한양 도성의 북쪽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시대에는 이곳에 둔전(군대가 머무르면서 농사짓는 밭)이 있었고 이 곳 주민들이 두부와 메주를 만들어서 조정에 납품했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북적북적하였고 여기에서 ‘북정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대략적인 마을 구조를 보면 원형 도로에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산 위에 있어서 전망도 좋다. 건너편 한양 도성에서도 북정마을이 보인다.

지금 북정마을은 서울 시내에 몇 안 되는 달동네 중 하나다. 한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는 시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던 곳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 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북동에 재개발 논란이 일면서 이 북정마을도 완전히 없어질 위협에 처했다. 비록 낡은 마을이라 해도 모든 달동네들이 그러하듯이 북정마을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품고 있는 마을이다. 서울 성곽 일부가 완전히 없어져서 찾을 수 없었던 게 생각난다. 오래된 것을 무조건 없애고 새것으로 바꾸는 게 항상 옳은 일일까?

지금의 재개발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작업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개입된다. 게다가 북정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

다. 이들은 도시 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북정마을 외에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북정마을을 걷는 도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마침 산신제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나눠 먹고 있는 중인데 줌 먹고 가라고 하신다. 나물과 고깃국의 온기가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 준다. 이런 풍경은 옛날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 안에서 보게 되어서 그런지 더 감동적이었다. 요즈음 보기 힘든 풍경에 북정마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번 답사를 하는 데 2시간 남짓이 걸렸다. 사실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뚜렷한 목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수도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문화재를 직접 답사함으로서 예전에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라고만 생각했던 문화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울 성곽은 어느 날 우리 앞에 홀연히 나타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세월 속에서 닳아지고 끊어지고 부서졌지만, 성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
최진형은 성북동에서 태어나 고3인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성북동 토박이다. 현재 경동고등학교 3학년으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역사를 전공할 예정이다. 성북동에 살면서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한양도성을 이번 답사를 통해 새롭게 느낄 수 있었으며, 역사 연구와 현장 답사의 중요한 관계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한다.

사진으로 남은 성북동

빛 바랜 사진 한 장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카메라 앞에 섰다.
공터가 많았던 옛날 성북동의 어느 한 자락,
아직 집들이 채 들어서지 않은 옛 마을은 고즈넉하다.
이제 곱던 어머니는 세월과 함께 주름이 늘고
사진속의 아이는 뽀뽀 장부로 자랐으리라.
그러나 그 세월은 이렇게 성북동 사진 속에 여전히 남아 빛나고 있다.

전시 이야기

그 시간을 걷다

김보라

이제 성북동에 깃든 영원의 시간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오래 전부터 이곳을 찾아 온 예술가들은 현재 우리 곁에 한국 근현대 예술사를 채우는 거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짙은 내향은 여전히 곳곳에서 배어 나온다. 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위한 터전은 산과 계곡으로 충만한 자연이며 삶의 근원은 초월적 관계에서 오는 교감이다. 그리 크지도 않은 마을 한 편을 걷고 있자면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정결(淨潔)한 예술가들의 정취가 묻어 나온다.

시간을 거슬러 삼백여 년 전으로 올라가 보기로 한다. 이곳을 찾은 겸재(謙齋) 정선은 현재의 삼선교에서 성북동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전해 오는 이러한 이야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그림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그곳은 인파로 붐비는 현대의 모습으로 변모하였지만 그러한 역사를 인지하고 바라보는 성북동의 모습에는 더할 나위 없는 푸르름과 여백이 있을 뿐이다.

그로부터 백 년 남짓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조선 말기 화가인 오원



(吳園) 장승업이 우리의 여정에 등장하게 된다. 그는 현재 집터로만 남아 있는 그 곳에 거하며 대담하고도 소탈한 작품 세계를 일구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그곳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존의 의지를 상실하여 안타까움을 남긴다.

시간을 조금 더 내려와 성북동 중턱 즈음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도 쉬울 법한 만해(萬海) 한용운이 거하던 심우장(尋牛莊)이 있다. 조선총독부를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곳의 시간은 변함없는 지조로 가득한 한용운 자체로 채워진다.

이제 한국의 20세기를 열며 문학, 미술, 음악에 있어 정신적인 승화를 추구했던 예술가들이 가득 차 있는 시간으로 다가서본다. 미술관의 창 너머로 보일 듯한,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존재하고 있을 법한 실존의 가치는 문득문득 마음에 그 무게를 느끼게 한다.

민족 문화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춘해(春海) 방인근, 노시산방의 인연으로 이미 우리 미술관에서 다루었던 근원(近園) 김용준과 수화(樹話) 김환기, 그리고 여전히 수연산방의 집필하던 그 방을 향하여 숨을 죽여야 할 것 같은 상허(尙虛) 이태준이 바로 곁에서 숨을 쉬고 있다.

성북동의 변화하는 계절 향기는 수 시간 동안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시와 음악을 만들게 한다. 김광섭은 ‘성북동비둘기’를 노래했고, 윤이상과 조지훈은 글과 음을 통하여 서로의 영혼을 나누었다.

그 외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한 시간적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더 있다. 한국의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에 힘써온 간송(澗松) 전형필, 미술사학자로 활동한 혜곡(兮谷) 최순우, 한국화의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던 우향(雨鄉) 박래현과 운보(雲甫) 김기창, 개성적인 문체를 펼쳐 낸 구보(丘甫) 박태원과 백사(白史) 전광용, 그리고 독

창적인 미술 세계를 구축해온 권진규, 변종하, 송영수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같은 공간에 흐르는 시간을 타고 아직도 현재에 머물고 있다.

〈그 시간을 걷다〉展은 거론된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있어 모든 면을 세세히 다루지는 못한다. 단지 그 서막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적지 않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같은 공간을 살았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막 조심스럽게 펼쳐 보는 것이다. 오래지 않아 이러한 단편적 초상들이 기반이 되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르는 시간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지나간 시간의 파편들이 하나의 완전한 시간을 이루어 낸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가 결합된 새로운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재는 영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걷고자 하는 이유이다. 가능하다면 숨겨져 있는 모든 영원의 시간으로 향하려는 것이다. 圖

-
김보라는 성북구립미술관 관장이다. 성북구립미술관은 2009년 구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세워진 공립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하였다.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근현대 미술사의 의미를 찾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근현대 미술의 메카로서 성북동을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작가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성북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문화 성북동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가이다. 이 글은 2011년 10월부터 12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그 시간을 걷다’의 해설로, 몇 해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성북동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게 하는 글이라 제수룩한다.

성북동 사람들

오늘, 별 볼 일 많은 북정 마을에 간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학

김창석

우리가 매일 눈 뜨고 잠들던 집, 웃음소리, 울음소리로 조용한 날 없던 그 집 앞, 그 골목을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낙서는 누가 했을까요? 한 시절을 간직한 그 골목, 그 집, 그 사람들을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도, 가장 슬픈 시간일 수도 있는,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골목에서 사람 냄새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학을 만났다.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북정마을로 향하는 마을버스를 뒤로하고 걷기로 한다.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녔고, 그 동네 살던 친구가 몇인가? 마을버스는 무슨, 등교하듯 걸음을 옮긴다. 시간은 지났지만 길은 여전하다. 몇몇 간판이 바뀌었고, 새로 지은 건물도 보이지만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성곽길이 열려서 그런지 동네를 잘 돌아다니라는 표식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늘 가던 데로, 성곽길이 아닌 쌍다리에서 북정마을로 바로 향한다. 없던 벽화가 그려지고, 재개발반대 포스터와 문 앞을 지키는 흰둥이가 일어나 꼬리를 흔든다. 친구 녀석은 아직 저 골목 끝에 살고 있을까?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달동네, 성북동 북정마을. 여전한 풍경에 웃음이 먼저 지어지는 마을이다.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지만 다닥다닥 붙은 집과 집, 그 사이 골목과 골목, 그 안



에서 쏘아내는 사람 냄새가 만들어내는 힘은 아주 오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전히 만해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이 있고, 서울을 감싸 안고 있는 성곽이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들의 삶을 담아내는 사진가 이재학이 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달동네

“북정마을을 다닌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성북동에 여전히 사촌이 살고 있고, 어린 시절 학교도 인근이라 낯선 동네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잠시 잊고 있던 고향을 찾은 사람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천호동에서 꽤 오래살고 있지만 이곳이 더 편하고 더 좋습니다.” 사진가 이재학은 사라져 가는 풍경을 기록하고 있다. 북정마을을 찾기 전에는 청계천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중계동 백사마을과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 상도동 밤골마을 등 1,200만 명이 살아가는 대도시 서울의 그늘을 찾아다니며 사람과 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게 십수년을 찍어왔다. 먹고 사는 일은 별개지만 사진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없다고 말한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을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 사진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밥 먹고, 함께 웃는 일이 더 중요하다. 사진전을 관람하러온 지인들이 이제 예쁜 사진 좀 찍으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남들은 잘 가지 않고 보지 않는 풍경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알림 - 위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성곽과 마을이 아름다운 북정마을과 북정미술관이 있습니다. 안보고 가시면 평생 후회 하실 것입니다.>

- 북정마을주민 일동 -

북정마을 가는 길에는 이렇게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글이 적혀있기도 하다.

북정마을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2013 우수마을공동체’에 뽑히기도 했다.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가꾸려는 주민 모두의 노력이 있었다. “낯고 보잘 것 없는 동네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동네보다 따뜻한 마음이 모인 마을입니다. 지금 북정마을에서 이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북정마을에 도착하면 항상 고향에 온 기분으로 마음이 들뜬다는 이재학 사진가. 그는 무작정 카메라를 들지 않는다. 카메라에 담기는 사람과의 거리만큼 사진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통 카메라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거나 어색해 하는 게 보통입니다. 전문 모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작가와 모델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 질 때 가족 같은 마음, 즉 신뢰가 형성되고 친해지면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진이 몰래 촬영한 듯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영정 사진과 반명함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했다. 처음엔 무료로 해드리고자 했지만 생각을 바꿔 최소의 비용을 받았다. 물론 인화하고 액자를 하는 비용이 곱절은 더 들었다. 주민들이 동정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야 그분들도 당당히 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 급기야 동네주민 자녀의 결혼사진까지 찍어주었다.

본래 해야 할 작업보다 부수적인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하자, 지금까지 일이나 작업이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든 적이 없는데 본래 일과 부수적인 일에 구분이 있었겠냐며 웃는다.

주민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정으로 대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누구라고, 밥은 먹었냐? 날 추운데 몸 좀 녹이고 가라며 자기





자리를 내주고 정성스레 밥상을 차려주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 들리지 않으면 아픈 건 아니냐, 전화도 주시고, 더 해드리고 싶고 늘 보고 싶은 분들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잊지 못할 북정마을의 새벽

지난해 10월에는 ‘성곽과 자연이 아름다운 성북동 옛날 사진전’을 열었다. 주민들이 전해준 옛 사진들이다. 사진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소중한 기억을 꺼내 이 작가에게 전했다. 장소도 준비도 주민들이 나서서 했단다.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북정마을 찾았다. 조용한 동네가 사람들 발길로 시끌벅적했다. 주민들은 먹거리 장터도 만들고 마을을 찾아온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허름하다고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것 보다 있는 그대로 조금씩 바뀌기는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거죠. 북정마을 새벽 풍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증하신 사진과 제가 찍은 북정마을 사진을 한 데 모아 상설 전시도 했으면 좋겠어요.”

북정마을 정류장 옆 북정카페에는 그가 기증받은 동네 주민들 사진이 걸려있다. 말은 카페이지만 어묵과 막걸리를 파는 좁은 판잣집이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엔 사진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아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가 기증받은 소중한 사진들과 북정마을의 요즘 모습을 상설 전시할 방법을 모색하는 이유다. 새로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면, 방문객들로 인해 소소한 수익도 생기고 마을에 활력도 생길 것 같아서다. 물론 넘죽이 아줌마로 불리는 북정이발소 안주인이자 북정카페 주인과 제일 친해

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도 잊지 않는다.

“얼마 전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여러 분야 인사들에게 서울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북촌마을과 도심을 중심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사진으로 봤던 서울 말고 제가 아는 서울을 보여 달라더군요. 바로 북정마을로 왔죠. 사실 걱정도 들었는데 그들의 첫 마디에 잘했다고 싶었죠. 어찌나 원더풀을 외치던지.”

그들을 따스하게 맞이해 주는 주민들의 다정한 눈길, 넓고 오래되었지만 사람 손때 묻은 집들, 주민들이 열심히 그린 벽화, 마을과 주민들의 오래전 모습을 담은 사진들, 어느 것 하나 인위적이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오늘 그대로였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얼마나’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좋아하는 일이라 배고픈 것도 잊고 사진을 찍을 때가 많았고, 아파서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늘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선다는 사진가 이재학, 행복한 일을 하는 데 무슨 근심이 있겠냐며, 항상 사람과 마주하고, 기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색과 움직임을 담기 위해 보정 프로그램이 아닌 그 순간을 만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간다면 웃는 사진가 이재학을 만났다. 북정마을에 다녀왔다. 

이재학(Lee Ja Hak) 작가 약력 - 개인전 / 2001 난곡 (서울 갤러리 룩스) / 2003 밤골마을 (서울 갤러리 이룸) / 2006 미사리 (서울 갤러리 브레송) / 2010 백사마을 이야기 (서울 갤러리 나우)

김창석은 ‘소셜멘토링 달팽이’ 콘텐츠팀 팀장이고 프리랜서 출판기획자다. 10여 년간 출판기획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소셜멘토링 달팽이’에서 청소년의 ‘하고 싶은 일 찾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성북동 동구마케팅고 입구의 전복 판매점 ‘아발론(ABALONE)’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이야기, 우리 이웃 풍경

동네 사랑방, 우리 동네 정육점 동구마케팅고 입구 ‘한농 정육점’

그림 김철우 / 글 이현숙

아주 가끔, 퇴근길에 고기를 사러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어느 날은 막걸리와 수육, 어느 날은 유리 병 속에 담겨 있는 정체모를 뿌리와 앞사귀로 담근 술들로 모두들 거나해져 계신다. 정육점 사장님의 요리 솜씨는 일품이다. 그 맛을 알기에 나의 침샘은 정육점을 들어서면서 이미 샘물처럼 솟아난다.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엔 냄새가 너무 유혹적이기도 하다. 막걸리 한잔과 안주 한 점을 얻어먹는다. ‘집에 가기 싫다’ 불쑥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토록 가고 싶던 집조차 다음 순위로 미뤄버리는 정육점의 즉흥 파티는 흥겹기 그지없다.

어렸을 적.

동네 가게 주인은 동네 사람들의 집집마다 가족 상황을 다 꿰고 계셨다. 저 집의 첫째는 누구고 뭘 하고 있으며, 막내의 이름은 뭐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꿰고 계셨다. 무언가를 드시고 계실 때 심부름 가면 꼭 먹으라고 나누어 주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가게, 그런 가게가 우리 동네 초입에 있다. 참 따듯하다.

“무슨! 나는 이 동네에서 아그인다...” 옆에 있는 ‘옛날 중국 집’ 정



도는 돼야지 하시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심에도 그냥 마구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은 언제 이 동네로 오셨나요? 고향은 어디신가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더니 “아! 그러고 보니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하신다. 81년도에 전라도 해남에서 올라 오셔서 마장동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셨단다. 그러다 친구 따라 성북동에 여러 번 오셨다가 아예 여기로 옮기셨단다. 이젠 저 멀리 있는 고향 보다 여기가 더 고향 같다고 말씀 하시는 사장님. 성북동이 너무 좋아 여기 눌러 앉은 게 벌써 18년이란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의 눈빛이 촉촉해 지는 것 같다. 아침이면 조기 축구를 하고 일요일이면 동네 주민들과 산행을 하며 열심히 사는 사장님. “다들 이렇게 건강관리도 하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사는 게 인생의 낙이죠 뭐. 인생 별건가요!” 그러고는 그저 허허 웃고 만다. 하긴 인터뷰라는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 웃음 하나에 그동안 살아온 삶의 굴곡과 신산이 다 엿보인다.



정육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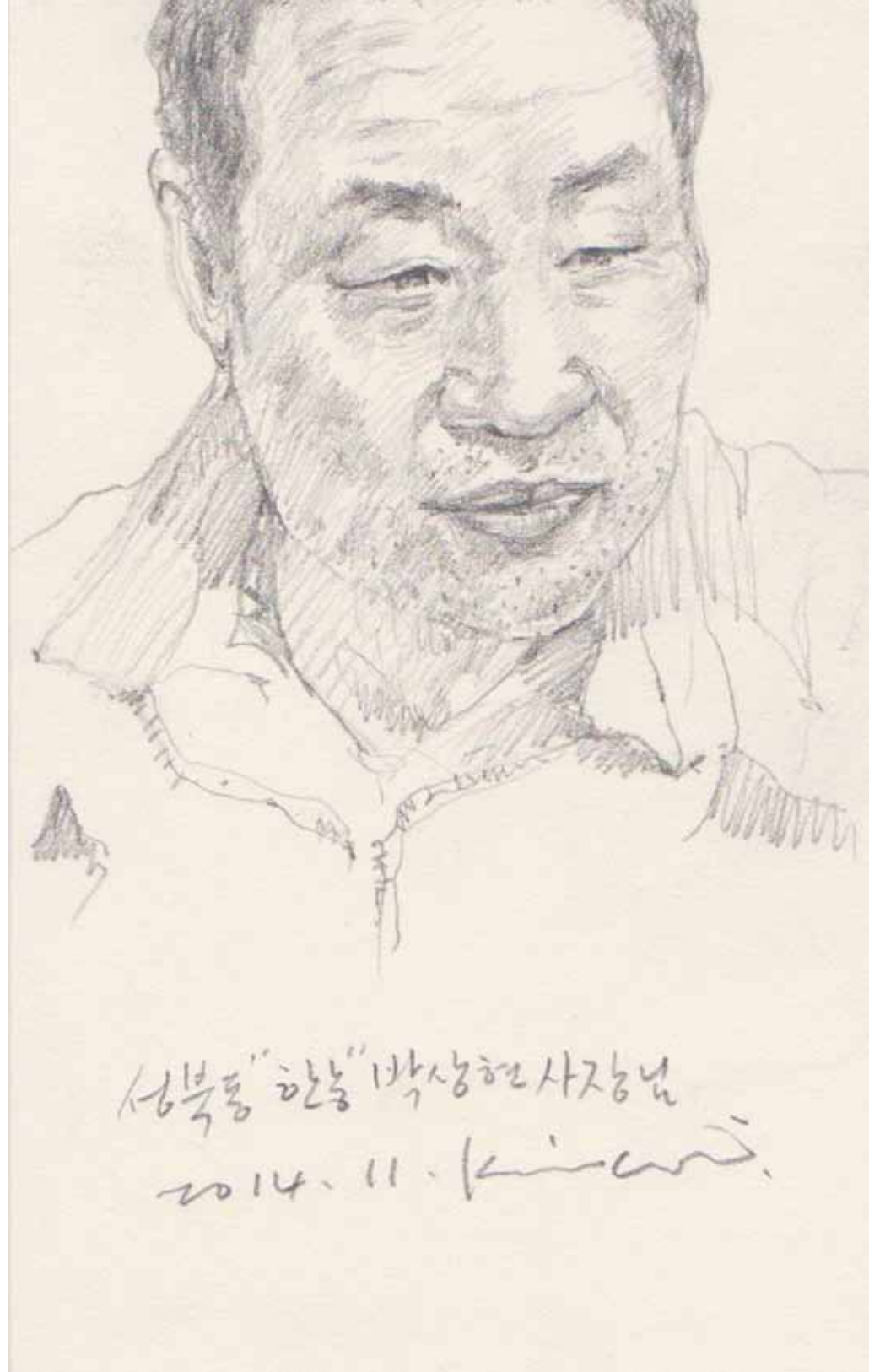
한농
정육점

3673-1569

한농 정육점
하림닭판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네 할머니가 김장 수육고기를 사러 오셨다. 3년 전에 당고개로 이사를 가셨지만 꼭 여기 들러 고기를 사 가신다고 했다. 가만 보니 낮이 익다. 작년에 동네에 놀러 오셨다가 친구 분 따라 우리 집에 오셔서 김장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난다. 배추 30포기를 담그는데 다섯 분이나 오셔서 순식간에 끝났다. 그리곤 한농 정육에서 사온 수육을 안주삼아 할머니들과 술 한 잔을 나누었다. 김장 시간보다 술시가 더 길었던 기억, 그게 우리 동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 왔던 이 분들과 계속 여기서 살리라. 유목민처럼 여기 저기 떠돌지 않고 여기서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
김철우 화백과 글을 쓴 이현숙씨는 부부다. 김철우 화백은 '성북동천'의 대표이고, 이현숙씨는 회원으로, 두 분이 함께 마을을 온전히 마을답게 만드는 일에 신명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은 두 분이 사는 동네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정육점에 대한 짧지만 따스한 '글+그림' 이야기다.





독립 운동가 만해의 별장, 심우장을 찾아서

박진하

만해 한용운 선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언급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승려라는 사실이 떠오른다. 그래서 당신이 머물던 주거지를 지칭하여 심우장(尋牛莊)이라 했던 것이다. 산사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탕화가 심우도(十牛圖)다. 젊은 승려가 소를 찾으러 다니다 마침내 소를 발견하고 그를 잡아 데려오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때의 소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소를 잡았다는 사실은 득도를 했다는 의미다. 이런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소를 찾는 심우(찾을 尋, 소 牛)단계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별장 이름이 차용되었다.

우리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학생이었다. 어느 벼슬이나 선생이라는 말보다 학생이라는 말을 선호했다. 영원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까닭이다. 불교에서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가졌던 초발심을 유지하라고 한다. 그래야 목표하는 득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도 초발심을 의미하는 심우라는 말을 사랑했나 보다.

심우장은 산사가 아니다. 선생이 기거하던 집일 뿐이다. 삼선교 로터리에서 성북동쪽으로 난 큰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길가 넓은 공간에 선생이 앉아 계신다. 만해산책 공원을 지키며 홀로 앉아 계신 것

이다. 선생의 살아 생존의 모습 그대로 청동으로 조성해 둔 것이다. 그 조각을 뒤로 하고 산 중턱에 올라서면 심우장이 나타난다.

항상 이곳에 오면 만해 선생이 계시던 그 당시의 주변 풍경은 어떠했을까하는 궁금증이 떠나지 않는다. 선생이 성북동을 거주지로 삼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의 성북동이 가진 매력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점은 성북구립 미술관에서 개최된 “성북, 예술의 길로 전”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화가 김환기의 아내가 쓴 “월하의 마음”에서 당시(1944년)의 성북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성북산협(城北山峽)에 자리 잡았을 때는, 그곳에 서너 채의 굵은 별장과 띄엄띄엄 몇 채의 초가집이 있었을 뿐으로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되 완전히 산에 사는 것 같았다.

맑은 공기와 수목의 향기와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의 노랫소리는 우리의 젊음에 배가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혜화동 입구에서 보성중학 고개를 넘어 산협에 이르는 2,30분의 거리를, 또는 삼선교에서 골짜기까지 올라오는 3,40분의 거리를 항용 날마다 도보로 내왕하고도 피로한 줄을 몰랐다.’

만해 선생이 심우장을 조성했던 1933년에도 이 글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직장이 있었던 중구로 출퇴근 할 때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 별장의 대문은 너무도 평범하게도 꽃무늬 쇠창살문이다. 한옥이나 문화재와 같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고풍스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폐쇄된 큰 문을 피해 쪽문으로 들어서면 따님을 위해 나중에 건립했다는 건물이 전면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마당 오른쪽으로 선생이 직접 식재했다는 향나무가 보인다. 꽃은 없지만 깊은 향기를 머금고 있는 이 나무는 마치 대웅전 큰 불상 앞에 피워 놓은 향불처럼

집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듯하다. 그리고 그 왼쪽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다소 커다란 소나무는 선생의 높은 지조를 닮아 있다.

건물은 북향집이란다. 조선 총독부가 싫어 그렇게 했다지만 오히려 산 숲을 뒤로 하고 탁 트인 계곡을 향하도록 건물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다.

드디어 대문을 지나 징검다리를 밟아 몇 걸음을 걸으면 편편한 박석이 깔려있다. 그 위로 두 단에 걸쳐 화강석 기단을 만들고 댕돌을 만들어 두었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5칸으로 되어 있다. 좌측 한 칸은 선생이 거거하던 서실이고, 중앙 두 칸은 부인이 주로 이용하던 안채인 셈이다. 그 우측으로 부엌이 있고 그 뒤쪽으로 찬방을 만들어 붙였다. 그리고 보면 이 다섯 칸짜리 집에서 선생이 주로 이용하던 서실 하나만 빼고 전부 부인을 위해 내어준 셈이다. 즉 심우장은 부인을 위해 만들어진 집이다. 중앙에 위치한 안채는 대청마루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이하게도 대청마루 문은 넓은 아(亞)자 무늬의 유리로 마감했으며 방문은 띠살무늬 창호지 문이다. 방문이 앞뒤로 2개씩 만들어 활짝 열어두면 자연스러운 자연풍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방식은 선생의 거실에 이르면 한층 더해진다. 거실에는 방문이 세 개나 된다. 전후면 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있다. 선생의 활달함이 여기에 이른 것인가? 이 건물 왼편으로 돌아 후원으로 가다 보며 담장 옆으로 작은 막돌을 쌓아 화단을 만들고 크고 작은 나무를 식재해 두었다. 그 화단은 산세의 경사를 따라 점차 높아지다가 담장에 이르러서는 다소 넓은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같이 동행한 아내가 화단 전면에 가득 식재한 쥐똥나무 숲 틈으로 보이는 배추를 가리키며 여기에 채소가 심어놓았다고 감탄한다. 그 좁은 공간이나마 채마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선생의 거실 앞 쪽에서 시작한 텃마루가 뒤로 돌아 부엌 옆 찬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후원에서 볼 때 뒤집힌 ㄱ자 모양을 하고 있다. 즉 찬방과 부엌이 두 칸으로 세로로 길다. 텃마루에 놓인 굴뚝은 기와를 이용하여 만든 장식이 이채롭다.

유일하게 한쪽 면을 창문이나 출입구가 없이 벽면 처리를 한 찬방도 안채에서 드나드는 창호지문과 그 반대 면에 설치한 유리 창문이 있어 개방성을 더하고 있다. 이것은 부엌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찬방과는 경계 구분이 없이 탁 트여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으며 집 앞쪽 대청마루에서도 드나들 수 있게 했다. 더 나아가 오른 쪽 벽면에도 부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용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뒤쪽을 돌아 앞으로 나와 보니 답사 객이 가득하다.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다. 선생의 태어남과 일생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심우장이 선생이 마지막 십여 년을 거처하신 공간이라는데 의미를 둔 것이리라. 오히려 이 건물의 아름다움보다는 선생의 위대한 발자취가 그리워 찾아온 내방객의 마음을 이 해설사는 알고 있음이리라.

답사를 마친 후 조용히 선생의 시 한편을 되새겨 본다. 閏

알 수 없어요. /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搭)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를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박진하는 본지 편집위원이고, 현재 성북동에서 식당 ‘디미방’을 운영하고 있다. 요가와 명상에 관한 책을 세 권 내기도 했으며,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다.

이 답사기는 만해가 거주하던 심우장을 둘러보고 쓴 글이다. 선생은 그가 가장 존경하던 석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부처는 조국을 멸망시키려는 정복 왕의 말고삐를 부여잡고 두 번이나 만류하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선생은 죽을 때까지 변절하지 않고 투쟁했다. 석가는 출가 후 여인과의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멀리했으나 선생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졌다. 그의 뿌리는 승려였으나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독립 운동가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부인을 아끼고 가족을 돌본 가장으로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심우장이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보통 아닌 보통 책방

ORDINARY BOOKSHOP

글 김정은 / 그림 정민영

10월 중순 어느날, 한성대 입구역에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로 가는 대로변의 뒷길 쪽, 방앗간과 이발소를 사이에 두고 ‘ORDINARY BOOKSHOP’이라는 낯선 가게가 새로 생겼다. 영어로 써놓은 간판이 어색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질문이 오간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사진을 뒤져보면 ORDINARY는 보통의, 일상적인 이라는 뜻이고 BOOKSHOP은 서점, 책방이니 해석하면 ‘보통 책방’이 되겠다. 그렇지만 책장에는 평소 보던 책들이 아닌 희한한 책들이 꽂혀있고, 또 서점이라기엔 규모가 작으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나 보다. 좁은 골목길에 책방이라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신다. 변화가 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닌 이곳에 책방을 여는 젊은이의 용기를 높게 사주는 분들도 계신다. 바야흐로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이 아닌 골목의 동네 책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 성북동 184-37번지, 보통 아닌 보통 책방, ORDINARY BOOKSHOP이 문을 열었다.

독립출판물, 들어보셨어요?

책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독립출판물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분들과 오며 가며 책방이 있어 찾아주신 성북동 주

민 분들이다. 독립출판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먼저 나서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가 어렵지 않아 짧은 설명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신다. 독립출판이란 1인 혹은 소규모의 인원이 기획, 디자인, 인쇄, 유통 등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하는 출판 체제를 일컫는다. 인터넷과 전자책의 발전으로 출판시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의 움직임으로 독립출판 시장은 규모가 점차 커져가는 추세이다. 독립출판물은 기존의 출판물과는 다르게 책의 형태도 가지각색이고 다양한 소재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것이 독립출판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우리 책방을 찾는 분들도 처음 보는 책들이 신기한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 제목을 보고 웃음이 터진다. 『두 번째 사표』, 『9여친 2집』, 『궁상도 가지가지』 등 재미있는 제목의 책들이 많으니 자연스레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참신한 내용에 또 한 번 관심이 간다. ‘오디너리북샵’에는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책방지기가 선정한 책들도 한판에 자리 잡고 있다. 베스트셀러와 자기 계발서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멋진 책과 출판사들이 많다. 이런 출판사와 함께 동네 책방으로서의 입지도 점차 굳혀나가려고 한다. 이 책장은 아직 가득 채워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책방지기와 책방을 찾아주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으로 함께 채워갈 예정이다.

성북동 그리고 책방

성북동이 아닌 다른 곳의 ‘오디너리북샵’은 생각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책방의 위치 선정 때문에 애를 먹었다.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낯설지 않은, 변화가가 아닌 동네. 이것이 기준이었다. 서울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동네는 이제 그리 많지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 개발되어 옛 모습을 잃었고 골목골목마다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내 뜻과는

맞지 않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 가까이에 있던 성북동을 뒤늦게 깨달았다. 성북동과 나의 인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암동에 자리를 잡은 게 대학교 2학년이었고, 그 무렵부터 본격 서울살이를 시작하며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성북동이었다. 성북동에는 맛있는 레스토랑과 예쁜 카페도 많고 무엇보다 길상사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동네 중의 하나였다. 성북동에 책방을 열기로 결심을 굳히고 나자 이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골목마다 이야기가 넘쳐나는 동네, 한양성곽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동네, 높은 건물이 없어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동네. 내가 성북동을 좋아하는 이유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성북동을 두 눈 크게 뜨고 돌아다니다 지금 책방 자리를 보자마자 반해버렸다. 작은 골목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책방을 열 수 있어 위치상으로도 좋았지만, 양쪽으로 큰 창이 있어 낮이면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어린 소녀가 책방을 열기까지 가깝고도 먼 길을 돌아왔다. 대학 졸업 후,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에 다니며 참 많이도 힘들었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일단 결심을 하고 나자 마치 예정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책을 좋아해서 책방을 열었어요.”

오디너리북샵과 당신

책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본다. 참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점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책을 고르는 여고생의 모습, 엄마와 함께 동화책을 보며 반짝거리는 아이의 두 눈, 퇴근길에 책 한 권을 골라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걸음. 내가 파는 것은 책이지만



그들이 사가는 것은 책 이상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입시로부터의 자유, 엄마의 사랑, 퇴근 후의 여유로움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매개로 ‘오디너리북샵’은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작은 동네 책방에서 나누게 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꿈꿔본다. 

김정은은 ‘오디너리북샵’의 책방지기이다. 성북동이 좋아 성북동 골목에 책방을 열었는데, 답답하고 지루한 회사 생활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요즘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 책방에서 교육이나 강좌 등을 열어볼 꿈도 꾸고 있다. 책방이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정민영은 북디자이너이고 일러스트레이터다. ‘오디너리북샵’의 귀퉁이 작은 공간에서 북 디자인과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성북동에 산다

오래 머물고싶은 마을, 마음 편한 동네-성북동

이민우

삼 년 전, 십일월 성북동으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성북동은 대학시절에는 간송미술관의 전시가 열리면 늘 찾아오던 곳입니다. 간송미술관의 전시는 항상 봄에 열려서 성북동에 대한 저의 기억은 ‘노랗게 꽃물 들고, 연하게 풀물 드는 봄’입니다. 간송미술관의 전시에 오면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둘러보곤 했는데, 돌이켜보면 숨도 편하게 못 쉴 정도의 적막이 흐르던 간송미술관의 한가로움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드문드문 관람객이 있긴 했어도 대부분의 관람시간 동안에는 전시실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려면 오랫동안 목을 조용히 굽다가 겨우 한 번씩 킁킁 했습니다. 제 헛기침 소리를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간송미술관에서 나오고 나면,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시소에 걸터앉아 또 반시간 봄별을 멍하니 쬔다가 돌아가고 했습니다. 대학시절의 성북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적막함. 오래되고 굴절이 심한 전시실의 유리창. 봄 그리고 간송미술관.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긴 후에는, 성북동은 몇 달에 한번 밥을 먹고 드라이브하는 곳이었습니다. 잠실에

서 차를 몰고 나와, 올림픽도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 광화문을 지나고, 삼청동길을 넘어서 터널에 오르
고, 성북동으로 넘어옵니다. 성북동이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목적지
는 아니었지만, 성북동에 도착하고 나면 운전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
고, 슬슬 돌아가는 길에 도로가 꼭 막혀 버릴까봐 걱정도 됩니다. 하
지만 다시 버릇처럼 성북초등학교에 차를 두고, 잠시 길을 걷다가 국
수를 먹고, 운동장에서 아이와 놀다가, 해가 서울성곽 위 말바위로 넘
어갈 쯤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성북동은 조용해서 좋았고,
가끔 늦잠을 잔 일요일에 놀러가기 좋았고,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저희 가족은 몇 달
을 참 바쁘게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다 보니 아
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 부족해서 고민도 많았고, 무엇보다 초등학
교를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나면, 부모가 없는 시간 동안
아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학원 버스를 타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
원을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일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
는 조건이 되는 곳을 물색하느라 주말마다 차를 몰고 나가 서울 곳곳
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과 학교 그리고 집까지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돌다가 하루는 너무 지쳐서, 그럼 바람이나 쐬자며 성
북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성북동은 조용하니까 잠시 복잡해진 머리
를 식히기에는 좋을 거라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성북동은 저희 가족에게는 마음을 편하게 해 주
는 동네인데도, 그 몇 달 동안 한 번도 성북동을 이사할 후보지로 생
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늦가을 쌀쌀해진 운동장에서 아이와 철봉에
매달리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면서 이런 조용한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목의 성취도가 낮다고 해

서 주변의 적당한 사설학원을 추천해 주는 잠실의 초등학교 보다는,
아이가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왜 그제서
야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마을을 내려오는 길에 근처 복덕
방에서 소개해 준 집을 계약하고 바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잠실에서 성북동으로 이사 오고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주변의
인사 중의 하나가 ‘왜 그 좋은 잠실에서 성북동으로 이사 왔어요?’라
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왜 그랬는지 짧게 몇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한
다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실의 아파트들은 단지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가끔 누가 사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누가 이사를 왔는지 누가 떠났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
니다. 그렇다고 노래 가사에 나오듯이 삭막한 네모 속의 네모난 사람
들은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도 알고, 그 자식은 누군지도 알고, 가끔
음식도 나누어 먹습니다. 옆집에서 가끔 마늘을 절구에 넣고 쿵쿵 찧
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위층 아저씨가 러닝머신을 달리는 소리가
천정으로 들리기는 해도, 아파트도 좋은 마을입니다. 다만 잠실을 떠
난 이유는 아빠와 엄마가 보낸 어린 시절처럼, 저희 아이도 더 많은
걸 보고 즐길 수 있는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 때문
일 겁니다.

여전히 저희 가족은 성북동에 와서도 바쁩니다. 한 집에 사무실과
살림집이 같이 있어서 여느 직장인들처럼 바쁘게 새벽밥을 먹고 아이
를 챙기는 일은 없지만, 부부는 아홉시에서 여섯시까지 일을 하고,
아이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대신 적어도 아이가 학교에서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고, 학
원에 갈 때 손잡고 버스를 같이 기다려 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저녁 일곱 시 전에는 저녁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늦

그린랜드인블루

그린랜드
인
블루
그린랜드 인블루
Greenland In Blue



저녁에 가볍게 서울성곽을 걷기도 하고, 산동네 골목을 작은 모험 삼아 이리저리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처럼 좋은 놀이터는 없지만, 아이는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뛰어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호사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별스러운 것 없는 변화 때문에 성북동으로 이사 오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간 성북동에 살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 친구도 얼마 전에 성북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친구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매일 성벽의 길을 올라 성벽 반대편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아이와 걷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났습니다. 친구는 이제 추운 겨울에는 성벽길을 어떻게 아이와 오를까 걱정스레 하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여름 장마에도 갔던 길이니 까, 이번 겨울에도 아이와 건강하게 다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에 아이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마도 이사 온 첫째 동안 많은 것을 친구의 가족들도 배워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오는 날 엄마와 함께 걷는 방법도 배웠으니, 이제 눈 오는 날에 함께 손잡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걷는 방법도 배우겠죠.

높은 건물과 집들이 없는 성북동은 담장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장 안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온전히 제 하늘같은 느낌입니다. 넓은 공원의 하늘은 모두의 하늘이지만, 마당에서 보는 하늘은 쪽방 같아도 그래도 제 하늘같아서 좋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더 멀고 더 큰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낮은 주택 안에서 보는 하늘은 더 포근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이사 오길 참 잘했다고 여길 거라고 저희 가족은 생각합니다. 찝찝한 사람살이가 그렇게 편한 구석도 있구

나 하는 걸 성북동에 와서야 새삼 느낍니다.

가끔씩 마당에 앉아서 언젠가 이 마을을 떠나면 어디로 갈지 가족과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다른 곳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저희 가족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역시 지금까지 결정했던 방법이나 기준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한 곳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 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우는 인형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회사인 글립의 대표이다. 애니메이션 더빙PD를 거쳐, 벤처회사를 다니다가, 15년 쯤 인형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만든 인형들은 성북동 홍익중고등학교 입구의 '그린랜드 인 블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상의 삶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마을 공동체 ‘성북동천’

성북동 마을공동체 ‘성북동천’은 지역 안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간 교류의 계기를 확대하기 위해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17717, 동네공간,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주)스페이스오뉴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가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체입니다. 2013년 2월 희망제작소 주관 ‘성북동 마을학교’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과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성북동이란 마을의 가치를 지키고, 나아가 주민들이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뜻을 모아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성북동과 동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담은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창간호를, 올해는 2014 서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2·3호를 간행하였으며, 연말에는 2014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4호(특집호)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한 강좌를 여는 마을학교 및 시낭송회와 같은 문화행사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창작 교실, 어린이 스토리텔링 공부방, 쉽고 재미난 미술 이야기, 이물제작 프로젝트-잡상 만들기 등의 강좌가 작년에 개설되었고, 지역 주민과 청년, 그리고 지역 내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

크 모임 ‘좋아서 하는 공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개설된 ‘젊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은 기존의 자치회관이나 구민회관, 평생교육관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좌로써 지역 안팎에서 널리 호응을 얻었고, 강좌이자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를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호평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성북동 마을탐방’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의 모습을 주민과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50여명의 탐방객들이 성북동을 여행하고 지역 주민의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성북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탐방 프로그램은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로서 성북동의 가치와 매력을 지역 밖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나아가 집과 지역이 투기를 위한 매매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곳’으로서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과 방문객이 깊이 교류했던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통해 성북동천 회원들은 마을의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존재(올해 마을탐방을 통해 세 분의 신입회원이 가입하였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즐겁게’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성북동천 회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며 지역에서, 일상에서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재미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북동을 가꾸는 모임 2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 (성.아.들)

‘성아들’은 성북동 아줌마들, 성북동 아이들로부터 시작해 성북동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성북동 역사문화 지킴이 협동조합입니다. 성북동에 점점 늘어나는 외지인들의 화려한 음식점과 멋진 카페들을 보며, 성북동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과 대로변의 발전이 과연 성북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발전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의 역사문화를 자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에는 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와 명소가 있습니다. 심우장, 한양도성, 최순우 옛집, 만해한용운 심우장, 길상사, 간송미술관, 선잠단지, 이중석별장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 지정,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기회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성북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성북동의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해 아줌마들이 역사 해설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배출된 14명의 해설사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성북동에서 즐거운 들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온 탐방객들과 성북동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하루를 보내기도 하며,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신 탐방객들을 내 부모님처럼 손도 잡아드리며 투어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정마을 원두막에서 수박과 찐 감자를 준비하여 나들이 탐방



도 진행하며, 찾아가는 마을학교 아이들과도 한양도성 쉼터에서 동대문 놀이도 하고 감자버터구이와 수박 먹기를 하였던 경험도 있습니다. 성북동 곳곳에 있는 맛집도 안내 해드리고, ‘월만한 물가’ 같은 성북동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저렴한 카페도 소개해 드리고, 물론 성북동에 숨겨진 맛집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임대를 받아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사무실에서는 투어 후 간단한 다과도 이루어 지고, 아이들과 직접 음식 만들기 체험도 진행합니다. 투어 이후 좋았던 점 개선할 점들을 나누기도 하고 잠깐의 휴식도 즐깁니다.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초밥도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며 투어에 참가한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성북 손말눈말 오케스트라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투어와 체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낼 부채

만들기, 부채에 그림 그리는 활동은 모두가 다 화가인 듯 열심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 공간이지만 많은 수의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너무나 좋아했던 OX퀴즈, 위크지 풀이를 마무리로 하루를 시간이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진심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듯 합니다. 가을에 다시 손말눈말 오케스트라에서 투어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여름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코스를 돌고 이번에 인간 윗놀이와 수건 돌리기를 준비합니다. 인간 윗놀이를 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모여 윗놀이 옷을 부직포로 만들고 말판 만들기 등 그 어느때 보다 열심히 단합된 힘을 발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만들어진 윗놀이 옷을 입고 실제로 진행도 해보았고 행사 진행 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 밖에도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조합원들은 우리를 알리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매 시간마다 성북동 문화유적지 소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북 만들기, 팽이 만들기 체험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행사 부스에서는 이런 만들기 부스뿐만 아니라 메밀전병 판매도 하며 우리들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누구 한사람이 아니라 서로 시간을 맞춰 함께하니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고, 이런 행사들로 인해 함께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간이 없던 처음, 커피숍이나 누구네 집에 모여 있던 아줌마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북동 주민 자치 센터의 도움을 받아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작한 아줌마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모임의 대상도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열려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리잡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 센터와 문화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지역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제 우리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북동 자치센터와는 년 3회씩 성북동 나들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봄 가을 성북동 탐방도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북동 투어는 성아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움이 밑거름이 되어 스스로 자립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꿈꾸고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이 진행해온 사업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성북동에 놀러와~’제1기 성북동 해설사 양성

‘랑.랑.붕(엄마랑 아이랑 함께 하는 봉사)’자원봉사단체 등록

2013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성북동에 놀러와~’제2기 성북동 해설사 양성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부모커뮤니티사업

‘엄마 놀아줘~’아이와 엄마가 함께 하는 돌봄과 교육 실시

2013년 서울시 인증 마을기업

▶ ‘성북동 보물찾기’로 공간 임대보증금 1억 지원

2013년 7월5일 / 성북동 역사문화 관광사업을 주도하는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협동조합’ 창립

2013년 11월26 / 협동조합 사무실 공간 개소식

▶ 성북동 역사문화 투어 본격화

성북동 주민 센터와 함께하는 ‘성북동 나들이’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성북동 역사문화 탐방 등 다수

2014년 안전행정부 인증 마을기업

‘성북동 고,고!고~(스토리 더하고, 역량 곱하고! 사랑 나누고~)’사업선정

성북구 교육컨텐츠 사업 추진

엄마랑 아이랑 함께 하는 성북구 역사문화 교육 실시

성북문화원과 함께 하는 투어

성북동 주민 센터와 함께 하는 성북동 탐방 등 성북동 역사문화 투어 다수

성.아.들이 하는 일

1. 성북동 투어

- 성북동 역사문화 투어

성북동 해설사의 이야기와 즐거운 체험이 있는 투어

- 성북동 문학&예술 더하기

- 한양도성 역사 따라잡기

2. 주말 수연산방, 심우장, 한양도성 쉼터에서 성아들 해설사

‘거점 해설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3. 교육관광기념상품

- 성북동 스탬프 지도

- 성북동 알아가기 workbook

- 성북동 퍼즐

- 성북동 카드게임

- 그 외 성북동 관광기념상품

4. 교육 컨텐츠 사업

- 성북동 해설사 양성과정

- 방과 후 엄마가 들려주는 성북동 이야기

- 우리고장 흥미진진 역사이야기 (총12강)

▶ 일제시대 나라사랑 이야기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심우장 : 북향으로 집을 지은 까닭은?

▶ 성북구 근대문학의 발자취를 찾아서

김광섭과 성북동 비둘기 : 성북동엔 비둘기가 있을까?

▶ 성북동의 예술가들

신윤복, 장승업 (조선시대 화가) : ‘바람의 화원’ 미인도, 단오풍정

5. 공간 대여

- 워크샵, 교육장소로 성북동협동조합 사무실 언제든지 빌려드립니다.

성아들은 이런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준비하기 위해 밤낮없이 모여 회의하고 또 회의하였습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많은 교육과 단체 활동 진행까지 병행하면서 힘든 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벌써 추억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그보다 더 나은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사진 회의를 진행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수시 회의, 마지막 주 목요일

월례회의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성북동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북동 투어 이후 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문지를 받고 스스로 고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체크하며 더 나은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성아들만이 할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지지고 볶고 힘든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은 성북동에서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더불어 잘사는 성북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북동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중심에서 성북동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서로 힘을 얻고 뿌듯함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이 또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북동을 가꾸는 모임 3

히말라야에 희망을 심는 NGO

‘나마스페코리아’의 꿈! 나마스페 코리아

‘나마스페’란 네팔에서 통용되는 인사말이다. 우리 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다. 따라서 ‘나마스페코리아’란 네팔인들이 한국인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는 말이 된다. “안녕! 대한민국!”. 요즘 서울에서 영어로 “Hi! Seoul!”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결국 네팔인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한국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로고 역시 한국의 젊은(젊게 살려는) 일꾼이 밝고 맑은 웃음으로 ‘나마스페!’하면서 합장 인사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히말라야들을 함께 존경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나마스페’는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이다. 인도 네팔 등의 히말라야 문화권의 인사말이다. 보통 미소를 지으면서 양손을 모으고 합장하듯이 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 신이 많은 국가 ‘네팔’ 사람들의 종교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한 마디가 바로 ‘나마스페’다. 다문화가 아닌 서로의 문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21세기에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차이에 대한 차별 없이 그냥 그대로 선입견, 편견 등의 고정관념을 깬다면 엉뚱하게 왜곡된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참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방학이 되면 네팔에 가곤 했다. 그러다 보니 5번이나 다녀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동호회처럼 돈을 모으고 물품을 조금 모아 네팔에

전달하곤 했다. 그러다가 항공사에 기부용품을 더 신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현지채류 스님께 기부할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도 하곤 했다. 그러던 2007년 네팔의 한 ‘고아원 학교’를 다녀온 몇 명은 1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뿐만 아니라 네팔 현지의 고아원도 우리의 방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었나 보다. 행사 다음날 우리가 다시 찾아 갔을 때 원장이나 그 많던 직원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반도 안 되었다. 고아원을 지키던 한 고용인을 통해 우리가 전날 전했던 노트북, 새 옷 등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씁쓸하면서도 우리의 무계획성을 반성하게 된 계기로 삼았다.

그 후 한 유명 재단법인이나 NGO를 통한 간접 지원을 하기 위해 적당한 NGO 조사를 해 보았다. 비영리조직이라도 인건비도 받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한다. 우리가 1만원을 기부했을 때 전액이 현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30%미만 아니 겨우 10%인 천원만 전달되는 곳도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주변에서 힘겹게 소규모의 NGO를 꾸려가는 몇몇 ‘독립투사’와 같은 이들과는 물론 무관한 얘기다. 이들을 제외하고 거대 법인이나 NGO의 실상은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를 그대로 보여준다.

비영리를 표방하는 거대 재단법인의 초청에 의해 아프리카를 방문한 한 지인은 ‘무료라서 따라갔다. 하지만, 정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많이 갔다’고 한숨을 지었다. 인건비 떼고 경상비 떼고 내년도 인건비 경상비도 적립금으로 떼고, 사람들의 여비마저도 떼고 현지에 돈을 송금한다고 한다. 현지 NGO 역시 비슷하게 떼고 겨우 현장에 가는 돈과 물품마저 안전하지 못했다. 현지 군경과 행정관료 등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선의’의 활동



가는 이미 이런 시스템에 체념했다는 말에 누구를 위한 ‘NGO’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NGO는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우리는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참’다운 NGO를 만들어보자고 108명이 뭉쳤다. 2007년에 활동을 개시한 나마스페코리아는 4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민간인들에 의한 공공외교를 펴기 위해 2011년에 비영리사단 법인으로 외교부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네팔문화권(히말라야) 조사연구, 교육훈련, 국제교류 및 협력, 봉사, 긴급구호 등과 함께 우리 통일문화교육, 역사바로알리기모임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하기로 ‘정관’에 넣어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활동을 통해서 인류 평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창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섬김, 배품 그리고 감동이라는 잔잔한 ‘행복’을 나누기 위

해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우리들이 NGO활동을 통해서 보다 행복해져야 한다고 회원들은 뜻을 모았다. 회원들 대부분은 정년 후에 नेपाल에 가서 한국어, 한국문화, 기술 등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선생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인들이 선의로 낸 기부금 1만원 가운데 2,3천원도 현지로 전달되지 않는 규모가 큰 NGO의 폐해를 보고 NGO가 처음 생긴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모아 만든게 ‘나마스떼코리아’다. 인건비 등의 간접비를 최소화하여 실제로 기부금가운데 2012년에는 87%, 2013년에는 83%를 사업비로 사용했다. 처음 품은 목표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젊은 간사들이 등록금을 낼 때는 도와주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다. 언젠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비 정도는 내 줄 수 있는 NGO로 일른 성장해야겠다.

2011년 외교부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 허가를 받은 이후에 ‘시민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외교부 등록 NGO로서 공식적으로 재출범했다. 2012년 기부금을 내주거나 재능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봉사활동인증기관으로 등록되면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에게도 ‘봉사활동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인증을 받게 되었다. 2012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NGO 지원단체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공익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아울러 주한네팔대사관, 한국불교연구원, 고산문화재단 등의 단체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MOU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네팔 현장에서 고아원 및 학교 등의 사업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매년 여름마다 진행되는 네팔 현지 해외봉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히말라야 문화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정착 생활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세대 아동들을 한 네팔 교류의 인재로 양성하고자 국내 활동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작년도에는 부모님의 이주 배경 국가의 언어와 문화와 삼국유사 이야기를 통해 바라본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한 “네팔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네팔 이주민 배경을 가진 한쪽 부모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현지 ‘네팔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줌으로서 ‘자존감’을 살리는 이 교실은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 기획자로서 매우 즐거웠지만,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전국 10여곳의 대학에서 이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지역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주민 다문화 학교’를 개설하여 보다 많

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문화’가 ‘따문화’가 아닌 그냥 ‘우리 문화’의 한부분이 열린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국제 개발 사업을 하는 NGO로써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단체를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단체라고 많은 회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준다. 한 자원봉사자께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된 아이들의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중학생이 된 후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과 아이들의 옷, 신발 등을 수거해서 사무국으로 보내줬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직접 참여하셔서 구연동화 재능기부 수업을 한 분도 있다.

NGO나마스페코리아는 네팔 현지 봉사 활동을 매년 진행한다. 네팔 여행은 대개 250 여만 원을 내고 현지에서 추가로 Tip이나 선택 관광이라는 Option을 하는 여행이 대부분이다. 네팔의 하늘과 산을 담고 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가난한 삶의 고통을 사진에 담아오는 것으로 족한가? 고통 속에서도 내면적 삶의 풍요로움을 찾는 그들의 참 모습을 봐야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 이제 단순한 여행 대신 현지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가 먼 더 맑고 밝은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은 어떨까?

NGO나마스페코리아는 네팔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인 담푸스에서 매년 현지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바로 눈 앞에서 안타푸르나와 마차푸추레를 매일 바라보며 한 잔의 ‘차’를 즐길 수 있다.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보람’도 얻게 하는 여행이 바로 현지봉사가 아닐까 싶다. 단순히 주는 현지 활동이 아니라, 의료봉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네팔 전통 춤과 음악의 향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문화 바로 알리기와 함께 네팔 문화의 수용성을 높

이는 그런 문화교류활동을 지향한다. 아울러 나마스페코리아는 국내에서 다문화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다. 불교적으로 보이지만, 기독교 목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탈종교성 및 종교간 대화를 중시하는 단체를 지향한다.

요즘 돈 좀 있다고 자녀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우리 NGO의 문을 두드리는 유한부인들이 적지 않다. 스스로 ‘사회지도층’인 듯이 ‘자원봉사’역시 스펙으로 가질려고 하는 이들은 정말 행복할까? 우리 NGO 임직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이며 대부분의 직원조차도 거의 자원봉사나 다름없이 성실히 일하고 있다. 스펙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삶의 여유와 보람을 함께 찾는 것은 어떨까? 네팔에서 하고 싶은 여러분의 맑고 밝은 꿈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다리니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사람이 하늘이라고 한다. 우리 스스로가 하늘이 되도록 참되게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우리 모두가 하늘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오랜 우리민족의 삶 그 자체라고 여겨진다. 단군신화가 전하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화랑도에서 유불선이 하나가 되었던 이 세 종교를 초월한 대화를 ‘나마스페’코리아가 해 나갈 것이다.

종로구 사간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나마스페코리아가 지난 2014년 5월에 한양도성의 높은 성벽을 넘어 만해 한용운의 향기가 가득한 성북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던 차에,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다문화 관련 단체가 밀집한 성북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시절

인연을 느낀다.

우리 NGO의 이사장은 ‘고래가 그랬어’에서 ‘뽕땅삼촌의 게임이야기’를 수년째 연재하고 있는 BAT스튜디오 대표로 김웅남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다. 유네스코 교육게임 프로그래머인 그는 이사장으로서 군림하지 않고 컴퓨터가 고장 날 때마다 달려와 수리를 해주고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고 가는 ‘자원봉사자’다. 회원으로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형민 전 SOS긴급출동담당 SBS CNBC PD, 리니지 게임의 원작자인 신일숙 만화가,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의 주인공 텐진팔모 스님(명예회원) 등이 있다. 최근에 성북동 국밥집 디미방의 박진하 사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회원으로 합류하고 있다. ☎

-
사무국은 (우편번호) 136-8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35다길 90(성북동 131-129) 2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는 070-7566-8112, 이메일은 namasteko@gmail.com이다. 한성대입구 5번출구로 나와 300m 정도 직진하여 오른쪽 비스듬히 난 고객길을 100m 정도 걸어올라와 경신중고등학교 후문에서 우회전해서 20m 앞으로 오면 된다.(찾아오는 길 안내 : http://namastekorea.org/bbs_notice/4548) 성벽길을 거닐다 경신고등학교 후문 가까이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NGO 프랑카드를 보면 주저말고 초인종을 누르기를 희망한다. 차한잔이라도 하면서 ‘성북동’의 마을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잡지를 받아볼 수 있는 성북동 가게들



오디너리 북샵



아발론

* 이 외 성북동 91번지 의원, 성북동 콩집, 카페 날아라 코끼리, 카페 느림보 거북이 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미방



샤뵘블랑

우리 잡지를 받아볼 수 있는 성북동 카페들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북동 마을 공동체 '성북동천'은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성북동천'은 마을 잡지 간행과 마을 탐방, 마을 학교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역 주민, 지역 내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곳

이메일.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10-2366-6238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체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주민, 17717, 스페이스오뉴월, 동네공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희망제작소가 함께 합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4호 (한양도성 특집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

편집 | 김현주 김홍식 박진하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디자인·사진 | 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성북동천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12-6 동네공간

010. 2366. 6238

〈비매품〉